

가토 기요마사 동상

1979 년에 세워진 이 동상은 가토 기요마사(1562-1611)의 생전 초상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1599 년부터 1607 년에 걸쳐 구마모토번의 번주로서 구마모토성의 축성을 감독했습니다. 동상의 모습을 살펴보면 가토 기요마사를 상징하는 턱수염에 나가에보시(길고 뽀족한 모양에 검은 모자의 일종으로 과거 일본 귀족 관료들이 착용한 모자와 비슷한 형태)를 쓰고 사이하이(무사가 병사를 지휘할 때 쓴 술이 달린 봉)를 잡고 있습니다. 동상은 실제 크기보다 약간 큰 사이즈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요마사는 남성의 평균 키가 지금보다 작았던 시대에는 몸집이 컸던 편이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히고국(지금의 구마모토현)을 처음 방문한 시기는 1588 년이었습니다. 당초 북부 지역의 약 절반을 영유하고 있었으나, 1600 년에 발발한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를 천하 통일로 이끈 공적을 높이 사 남부 지역의 절반에 해당하는 영토를 하사받았습니다. 기요마사는 여러 치수 공사와 간척 공사를 실시하여 오늘날 구마모토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